

부산 스포츠 특이점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Vol. **30**
2022. 09

부산체육인

부산 산악 100년을 향한 주춧돌을 세우다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최재우 회장

영광의 주역

물러서지 않고 거둬들인 결실
부산광역시씨름협회 박영권 원로

부산스포츠 히어로

대한민국 펜싱의 미래는 우리들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영도다리 만남의 걷기대회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

BSC 뉴스

- 2022 부산광역시장배 클럽테니스대회 개최
- 제3회 부산 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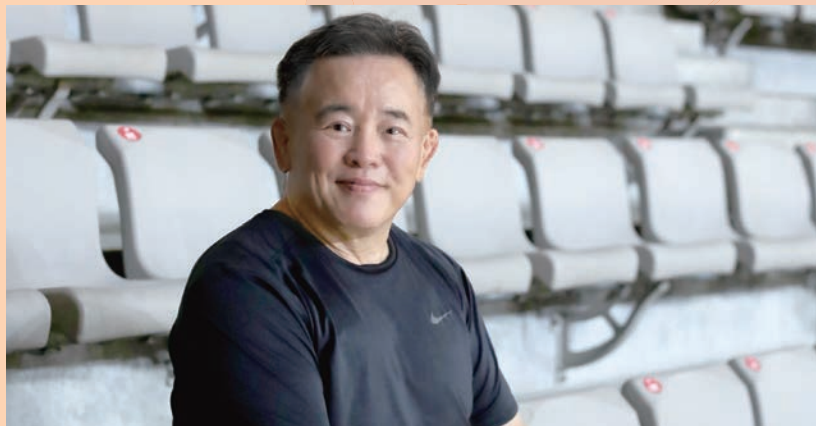




부산체육人

부산 산악 100년을 향한 주춧돌을 세우다

-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최재우 회장



영광의 주역

물러서지 않고 거뒀들인 결실

- 부산광역시씨름협회 박영권 원로



부산스포츠 히어로

대한민국 펜싱의 미래는 우리들

-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영도다리 만남의 걷기대회

-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



BSC 뉴스

- 2022 부산광역시장배 클럽테니스대회 개최
- 제3회 부산 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



부산 산악 100년을 향한 주춧돌을 세우다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최재우 회장

산은 남녀노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험준한 산은 전문 산악인도 범접하기 힘들다.
산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앞에서
사람이 작은 존재라는 걸 일찍이 깨달은
최재우 회장은 산을 이렇게 정의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산을 자주 오르면서 나름 원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매번 산을 마주할 때면 절로 겸손해집니다.”

최재우 회장은 지질학을 전공해 산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대학 시절 현장학습을 통해 산의 풍광과 멋에 흠뻑 빠져 시간이 날 때마다 산을 찾아다닐 정도였단다. 부산의 진산(珍山)인 ‘금정산’을 자주 오르면서 등산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마음먹게 된 최 회장은 부산시민등산아카데미를 통해 본격적으로 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69년 11월 29일 창설한 부산광역시산악연맹은 52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산하에는 50여 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데 한마음으로 화합하며 소통해나가고 있다. 산악스포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건립을 협의 중이라고.

“올림픽대회에서 동계·하계 메달이 걸려있는 종목은 ‘산악’밖에 없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경기장 건립을 통해 마음껏 산악을 즐기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일반체육 산악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산악연맹에서는 부산등산학교, 부산산악구조대, 부산산악문화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시민들에게 산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평생 지질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 기초가 단단할수록 모든 걸 튼튼하게 세울 수 있듯이 부산광역시산악연맹 100년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주춧돌이 되고 싶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거뒀들인 결심

부산광역시씨름협회

박영권 원로

스포츠
영광의
매거진

박영권 원로는 어릴 때부터 운동 신경이 남달라 체육 선생님마다 그에게 운동을 권했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씨름을 익히기 시작한 그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 체급이 지금처럼 세분화되기 전 박영권 원로의 체중은 무제한급에 해당되었다. 그렇게 자신보다 체격이 큰 선수를 상대하느라 몸에 무리가 갔고, 체급을 내리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에서는 몸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계단에서 굴러 다치기도 했다. 결국 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게 되면서 박영권 원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다. 그리고 스물넷에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된 그는 부산 금성고등학교의 씨름부를 맡게 되었다.



“소년체육대회에서 한 번도 4강에 못 들었던 팀을 1년 만에 우승시켰습니다. 저도 지고는 못 버티는 성격이라서 학생들과 힘을 모아 성적을 냈습니다.”

이후 박영권 원로는 1985년부터 여러 프로씨름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보내다가 2004년에는 부산광역시씨름연합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이때 그가 꾸렸던 부산 여자씨름팀은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고 여자씨름의 절대 강자 임수정, 이다현 선수 등이 탄생했다.

“흥미 유발, 동기 부여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대회에 출전시키는 게 아니라 우승할 만한 대회부터 출전시켜 성취감을 느끼게 했어요. 전략적으로 단련을 시킨 거죠.”

박영권 원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씨름협회 심판위원장을 맡아 모래판의 질서를 잡았다. 그의 판정은 ‘공정함’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파 판정, 약체팀 괘시 등 심판에 대한 오명을 씻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영권 원로는 씨름이 우리나라 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만큼 씨름판에서 값진 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匠人)’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대한민국 펜싱의 미래는 우리들!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는 1990년 창단해 32년 동안 부산의 펜싱 선수를 육성해왔다. 올해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는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입상하며 명문 펜싱부임을 입증했다. 선수들의 좋은 체격 조건과 성실함이 뒷받침되니 성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더불어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 선수들은 오히려 훈련을 더 하고 싶다며 지도자들에게 건의한다. 이처럼 선수들이 펜싱에 진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들이 훈련 분위기에 많은 신경을 쓴 덕분이다. 학생들의 성향이 자율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의 목표는 '전관왕'이다. 모든 시합에서 우승할 정도로 선수들의 기량이 출중하며, 이를 최대치로 끌어내고자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펜싱의 미래를 책임질 재송여자중학교 펜싱부. 전도유망한 선수로 성장할 그들의 앞날을 응원한다.



영도다리 만남의 걷기대회

중구체육회는 1994년부터 약 30년간 중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소통해왔다. 그중 중구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영도다리 만남의 걷기대회’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회는 중구와 영도구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영도다리 만남의 걷기대회와 매개함으로써 부산 원도심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영도다리 만남의 걷기대회는 2014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영도구청과 중구청에서 격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9년 대회는 중구체육회에서 운영을 맡아 진행하였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보류된 상태이지만 조속히 대회를 추진하고자 구상 중이다.

앞으로 중구체육회에서는 중구민들이 생활체육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으며, 노인 연령층이 많은 중구의 특성을 반영해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중구를 만들고자 한다.



2022 부산광역시장배 클럽테니스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테니스클럽 35개 팀 420여 명 참여

2022 부산광역시장배 클럽 테니스대회가 지난 8월 13일(토)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외 보조구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후원하고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와 생활체육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여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소속 총 35개 팀, 4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2022 부산광역시장배 클럽 테니스대회는 금배조 5개 팀, 동배조 30개 팀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대회 결과 금배조 1위 효원, 2위 동맥이 차지했으며, 최우수 선수로 남경호 씨가 선정, 동배조 결과 1위는 팀위너스, 2위는 한새벌, 3위는 부산반도와 하나클럽이 각각 차지하였다.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에서는 앞으로 구·군 및 부산관 내 상주 클럽 등 대표팀을 구성해 참가시킬 예정이며 매년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통하여 동호인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3회 부산 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

200명 초·중학생 참가해 열띤 경기 펼쳐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철인3종협회에서 주관하는 제3회 부산 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가 지난 9월 4일(일)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200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했으며, 아쿠아슬론(수영 및 육상) 종목을 개인전으로 치렀다. 철인3종 챌린지대회는 초·중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재능 있는 선수를 조기 발굴하는 초석을 마련하며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향후 본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영재교실 연계와 전문선수 전환을 추진하여 미래 우수선수를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는 “이번 철인3종 챌린지대회에 참여한 학생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경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학생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회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더욱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